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배포 일시 2018. 11. 1.(목) 총 4매(본문 2, 참고 2)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담당자 • 과장 최성용, 사무관 방중화, 주무관 최영숙 • ☎ (044)200-5850, 5853, 5854
담당 부서 해군본부 공보과	담당자 • 공보계획 담당 중령 조영상 • ☎ (042)553-6621
보도 일시	2018년 11월 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1.(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2일 거제서 해적 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 아덴만 파병 앞둔 최영함, 11만 톤급 국적 상선 1척 등 참여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일(금) 오전 11시부터 경남 거제도 앞 해상에서 해군, 국적 선사 등과 함께 국적선박의 피랍에 대비한 해적 진압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국적선박이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피랍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하며, ①해적의 본선 추격 및 접근상황 신고와 구조 요청, ②해양수산부와 해군의 해적선박 식별 및 경고 사격, ③선박 피랍상황 확인, ④해군의 본선 침투 및 해적 진압, ⑤선원구출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해양수산부·해군·해운선사의 훈련요원 350여 명이 참여한다. 또한, 11만 톤급 국적 상선 1척과 11월 13일 아덴만으로 출항할 예정인 4,400톤급 최영함, 고속단정 및 링스헬기 등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최영함은 2011년 1월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선박에 대한 구출작전(“아덴만 여명작전”)을 펼쳐 한국인 선원 8명을 포함하여 선원 21명 전원을 구조한 바 있다.


청해부대를 포함하여 다국적 연합 해군이 해적퇴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는 2015년과 2016년 해적공격이 각각

0건, 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총 9건의 해적공격사고(3척 피랍 포함)가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도 3분기까지 2건의 해적공격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적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9년 3월에 청해부대를 창설하고 해당 해역에 파견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제27진 왕건함이 아덴만을 항해하는 선박을 호송하는 등 연합 해군과 합동으로 해양안보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적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해군, 선사가 합동으로 연간 3차례의 해적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청해부대는 2009년 최초 파병 이후 현재까지 21,349척의 선박 호송과 527회의 해양안보작전 및 5회의 EU 대해적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총 21회에 걸쳐 31척의 선박에 대해 해적 퇴치 및 선박 구조 성과를 달성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에는 소말리아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과 필리핀·말레이시아 해역 등에서도 해적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동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하고, 해운선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사진 자료(2017)



< 해상작전 헬기 출격 >



< 고속단정(RIB) 출격 >



< 본선 침투 및 해적 진압 >

참고 2 이번 훈련에 투입되는 최영함

